

# 강원농협, 미래농업 기반 마련 위해 청년 조합원 확대 추진



1 2020년 농협 청년 농부사관학교 입학식 2 2021년 강원농협 연합판매사업협의회 정기총회 모습 3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선 강원농협 임직원 4 강원농협 브랜드 '맑은청' 로고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는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후계 농업인을 발굴해 미래농업 기반을 마련하고자 청년 조합원 확대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도내 조합원 연령별 가입현황은 40세 미만 1천782명, 40~59세 3만2천288명, 60세 이상 9만473명으로 집계됐다.

강원농협은 올해 말까지를 청년 조합원 확대 중점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45세 미만 조합원 가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시군지부와 화상회의를 열고 청년 조합원 확대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장덕수 본부장은 “농협은 청년 농부사관학교 등 젊은 농업인에게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청년 조합원 가입 및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출자금 배당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농자재 구매 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원지역본부는 또 올해 농산물 연합판매사업 매출 3천억원에 도전한다. 지난해 목표액 2천600억원과 비교하면 4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이를 위해 통합 마케팅조직 중심으로 판매 역량을 결집하고 강원도와 협력을 강화해 농산물 생산 안정제 사업을 확대한다. 참여 농협의 품목별 출하회를 대상으로 재배기술 교육을 진행하는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 확대를 시장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다양한 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특히 도와 함께 농산물 종합정보 관리시스템 구축과 고령지 배추 생산안정제 사업을 추진해 수급 조절과 분산 출하 등 농산물 가격 안정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강원농협은 2001년 전국 농협 최초로 농산물 판매를 담당하는 연합사업단을 만들었다. 사업 첫해 매출 114억원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2천989억원의 매출 실적을 거뒀다. ●

## 제 1교시

# 초협력 영역

1. 다음 중 서로 연관 있는 것을 이어 보세요

**더 새롭게!  
더 즐겁게!  
초협력으로  
함께**

정해진 답만 있다면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생각은  
탄생할 수 없습니다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영역과 경계를 뛰어넘고  
무한 가능성이 열리는  
새로움과 즐거움 가득한 세상

농협이 초협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